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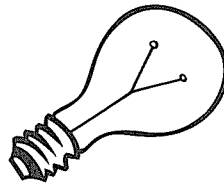
RI TRE

전가동향

한전, 신임 사장에 한준호씨 선임

한국전력공사는 삼성동 본사 대강당에서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한준호 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한 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의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하며, 한 사장은 경북 구미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0회 행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동자부 에너지정책국장, 자원국장,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중소기업청장, 생산성본부회장을 차례로 지냈고 지난달까지 중기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송전선 이물질 검증기 개발

한전 송변전처와 이투스가 공동으로 새로 신설된 송전선이나 휴전작업을 한 후 송전선로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찾아내는 장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 송전선로 접지제거 검증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1억8000여 만원의 개발비를 투입, 지난 2001년 11월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개월만에 개발됐다. 아직 국내외에서 개발되지 않은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외 전력 시설물 검증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송전선의 제원에 관계없이 모든 송전선에 적용이 가능하며 약 300km 구간의 송전선로 까지 송전선 접지 또는 작업 부산물인 철선에 의한 이상 유무를 체크할수 있다.

이 제품은 PLC(전력선 통신) 작동의 원리를 이용했다. 즉 휴전중인 A변전소의 송전선에서 50-450kHz 대역의 정해진 세기 고주파를 송출해 B변전소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 송전선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발전소·대형설비 프로젝트 등 이라크 전후복구 진출 교두보

국내 플랜트업체들이 발전소, 유전개발, 대형프로젝트 등 이라크 전후복구 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라크 키르쿠크 건설협회 및 키르쿠크 제조협회와 각각 경제협력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한국군 파병지역인 키르쿠크와 손을 잡았다.

이들 단체는 상설 핫라인을 설치, 이라크 현지시장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전문가를 파견, 공동조사팀도 구성하는 등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플랜트산업협회측은 이번 경제협력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이라크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르쿠크 경제사절단은 살마 다우드 자보우 이라크 산업부장관을 단장으로 현지 상공회의소 회장, 건설협회 회장, 기업인, 바이어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방한했으며 KOTRA의 초청으로 수출 상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플랜트산업협회의 안내로 현대중공업, 현대차, 두산중공업, SK정유 등 산업현장 4곳에 대한 산업시찰도 가졌다.



올 여름철 전력수요, 작년보다 8.2%증가 사상 최초...공급능력 805만kW

올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사상 최초로 5000만k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활동지수, 여름철 기상, 에어컨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최대전력수요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5126만kW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상고온으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전년보다 12.5% 증가한 5329만 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능력 5805만kW를 확보, 예비율이 13% 이상 유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고온이나 발전기 고장시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전력 286만kW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 전력안정대책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철 이전에 울진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영흥화력 1·2호기 등 발전설비 388만kW가 확충된다. 또 765kV 신태백변전소와 신가평변전소를 완공, 초초고압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기록된 4739만kW가 최대치였다.

전력연구원, '100만kW급 모델 제시'

전력연구원이 최근 100만kW급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 기본사양 발표회를 가졌다.

2011년 상용화 예정인 100만kW급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본 사양이 제시됐다.

한전 전력연구원 발전연구실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차세대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 1단계 중간성과 발표회를 갖고, 차세대 화력발전소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차세대 석탄화력발전 시스템의 모델은 발전용량 100만kW급, 증기압력 265kg/cm², 주증기온도 610℃, 재열증기온도 621℃이었다. 이 차세대 시스템은 오는 2011년 이후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최대용량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영흥화력발전 1호기로서 증기압력이 246kg/cm², 주증기온도 566℃, 재열증기온도 566℃이다.

이날 발표회는 산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수행 중인 차세대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 1단계(2002. 9~2004. 8) 연구 성과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전력연구원은 오는 8월말까지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2단계(2004. 9~2006. 8)에는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3단계(2006. 9~2008. 8)에는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와 검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선조합, 신입 이사장에 김복관씨 추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서울 강남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200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김복관 통일전선(주) 사장을 제20대 신입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또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 16명 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김복관 신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선업계는 원자재가 폭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으로 업계에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입 이사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총회를 마치고 당일 별세한 고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신임 임원〉

▲감사 양창규(희성전선 사장) 성병경(한미전선 사장) ▲이사 김정훈(대한전선 사장) 구자열(대한전선 부회장) 송운용(백상스코리아 사장) 서명환(대원전선 사장) 박석모(한국전선 사장) 박권준(대일전선 사장) 최병철(극동전선 사장) 김시균(코스모링크 사장) 김영재(한신전선 사장) 임희원(대룡전선 사장) 이충열(서울전선 사장) 황보명진(모보아이피씨 사장) 김상복(두원전선 사장) 김명일(경안전선 사장)

